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9일 목요일 음 12월 15일 (7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출겠다. 비닐하우스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4-6°C, 낮 최고 기온은 8-12°C에 머물겠다. 바다의 물결도 1.0-4.0m까지 높게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snow.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주의. Rows show information on air quality and visibility.

월드뉴스

이란,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미국·이란 군사 충돌 본격화

이란 혁명수비대가 8일(현지시간) 새벽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 여러 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이로써 미국과 이란의 보복 군사 충돌이 본격화하게 될 전망이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번 미사일 공격에 반격하면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의 우방이 이 반격에 가담한다면 그들도 공격의 표적으로 삼겠다”라고 위협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1시 30분 쯤 이뤄진 이날 공격이 3일 미국에 폭사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국을 향한 보복 작전이라고 발표했다. 공격 시각은 3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살해된 시각과 같다고 혁명수비대는 설명했다.

이라크 안보당국도 이라크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부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로켓 여러 발이 떨어졌다고 확인했으며, 기지 내부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오전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로켓 공격이 있었으며, 피해는 확인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 “우리의 강력한 보복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레바논 헤즈볼라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조직이 합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목요일론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우리는 올해 만큼은 다를 것이란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새해는 늘 설렌다. 그러면서도 새해 한 구석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 잡는다. 경자년(庚子年) 새해 국민이 바라는 사자성어는 '만사형통(萬事亨通)'으로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을 반증하는 마음이 만사형통(萬事亨通)의 염원을 담은 것은 아닐까? 설렘이 설렘으로 끝나지 않고, 두

정치는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

려움과 불안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실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정치라고 본다. 정약옹은 정치는 '바르게 하는 일이며 우리 백성들이 고르게 살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다. 간디는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그 체제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치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살아 숨 쉬고, 누군가에 의해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로 포장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

경제 용어인 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를 뜻하는 영어 '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1980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저서 '제3의 물결'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21세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 예견했다. 프로슈머 소비자는 소비는 물론 제품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해 해당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스스로 창조해나가는 능동적 소비자, 참여형 소비자의 개념이다. 영향력이 내재되어 있는 정치에서도 정책 프로슈머가 활동하고, 그런 기회들이 보장돼야 한다. 이럴 때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

새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동심만리(同心萬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먼 미래로 나아가자. '이청득심(以聽得心)' 귀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선우후락(先憂後樂)'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하자 등 도민과 시민을 향한 앞으로의 각오와 지향점에 대한 의지를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여구의 각오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프로슈머 기반 조성 이야말로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정치는 정책 프로슈머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되어,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열린마당

성산일출축제와 나의 의견



한원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성산일출봉에서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제27회 성산일출축제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성신·오조지길 트레일 걷기와 일출희망페어리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성산팍스타, 지역문화동아리공연인 성산클럽데이, 개막축하공연, 달집점화와 불꽃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주 10경 중 제1경인 성산일출봉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함께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유산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성산일출봉의 등재 가치는 바다에서 분출한 수성화산체로서 침식된 해안단애를 통해 분출과 침식, 사태현상, 다양한 층리구조와 퇴적과정 등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유네스코는 '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호와 관리에 무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소통정책자문단 활동 1년의 소회



김영보 서귀포시 시민소통정책자문단 위원장

지난해 1월 10일, 7개 소위원회 35명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이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나는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정과 자문단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제대로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한 컸다. 어느새 일 년이 지나 지난해 12월 26일 하반기 전체회의를 통해 자문내용과 정책변경사항 등을 공유하고 자문단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자문단은 소위원회 별로 활동하면서 32건의 시정현안에 대해 자문했고, 서귀포지역 의료강화 방안,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화합 방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안,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활성화 방안과 같은 시정 현안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수렴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폐농약 안심처리 수거시스템,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인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공직자 해피 스마일 운동 등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드론 이용 농약 방제 대행사업 지원, 어선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 확대, 읍면 보건지소 기능강화사업 등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흔사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시민참여는 과거 의견수렴 중심에서 요즘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실질적 참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서귀포시 시민소통정책자문단 또한 민관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서귀포시 발전 방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안, 자기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Cheilsa (제일사) featuring a man in a suit, a table of membership benefits, and a map of the store location in Jeju City.

Advertisement for Boraflower (꽃보라) featuring various potted plants, a storefron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Jeju branch.